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1. 14(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도지사, 신년 업무보고로 정책집행 속도 높여! 형식적인 업무보고 틀 벗고, 토론·소통 중심 진행 출자출연기관 참여, 유기적 공조체제 강화로 정책 추진 동력 높여	정책기획관	사진별첨
② 경북도, 2019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공모 1월말까지 신청접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4개사업 공모(2,230백만원)	문화예술과	사진별첨
③ 경북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말까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자치행정과	
④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환자 급증... 경북도 개인위생 준수 당부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	보건정책과	
⑤ 경북 '농촌개발' 호 2020년 국비레이스 본격 돌입... 출력 높인다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5분야 98개 지구 2,195억원... 전문가 사전 컨설팅	농촌개발과	사진별첨
⑥ 동해안전락을 한 눈에... '동해안전락 60대 시책' 책자 발간 동해안전락산업국 중점 시책 60건 책 한 권에 담아... 직원 업무연찬 및 시군과 소통	동해안정책과	사진별첨
⑦ 경북도, PLS 대응 현장기술지원반 운영 올 1월 1일부터 PLS제도 전면시행... 농업현장 안정적 정착 위해 기술지원 나서	농업기술원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도정 정책지문위원회 위촉 및 출범식' 가져	대 변 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4(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성자	기획관	정 성 현		
			팀 장	박시균	주무관	김석기
		연 락 처	054-880-2113			

이철우 도지사, 신년 업무보고로 정책집행 속도 높여!

- 형식적인 업무보고 틀 벗고, 토론·소통 중심 진행 -
- 출자출연기관 참여, 유기적 공조체제 강화로 정책 추진 동력 높여 -

연초부터 경북도 핵심 정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숨 가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가전·IT 전시회인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와 미국 투자·통상 세일즈를 위한 6박 8일간의 강행군 직후 바로 신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새롭게 도정의 추진 동력을 높여가고 있다.

15일(화)부터 실국별로 진행되는 신년 업무보고회는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들과 전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2019년도 핵심 정책에 대한 토론과 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보고회는 일방적 보고방식에서 벗어나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새롭게 재설계해 도민생활에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이철우 지사의 의중이 담겼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실국장은 물론 관련 출자출연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실행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등 지방 소멸극복 및 복지정책, 신산업 육성전략, 경북형 일자리 창출, 농축산유통혁신, 관광산업 활성화 등 주요 정책들을 논의하고, 메가프로젝트, 2020년 국비건의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도 함께 한다.

그 동안 발굴해 온 메가프로젝트는 지역의 비교우위 여부,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가능성 등을 재검토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2020년 국비건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한다.

한편,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과 도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속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부진 사업은 집중적인 점검과 대책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핵심 시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도민들이 현장에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2019년 실·국별 업무보고 계획

■ 보고개요

- 기 간 : 2019. 1월중
- 장 소 : 창신실
- 보 고 자 : 실국본부장 ※ 실국본부별 과장 및 주무팀장 배석
- 보고시간 : 실국별 1시간 이내
- 주요내용
 - 2019년 실국별 업무추진계획 및 주요사업 현황 보고
 - 중앙부처 정책추진 방향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방향 등

■ 보고일정

일 시		실 국 명 * 출자출연기관	비 고
1.15(화) 07:30 ~ 08:30		① <u>복지건강국+여성가족정책관실</u> *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 여성정책개발원, 행복재단,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원, 독립운동기념관	
1.17 (목)	07:00 ~ 08:00	② <u>농축산유통국</u> * 농민사관학교	
	08:10 ~ 09:20	③ <u>일자리경제산업실+투자유치실</u> * 경북TP, 바이오산업연구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교통문화연수원	
1.21(월) 07:00 ~ 08:30		④ <u>문화관광체육국</u> * 경북문화관광공사, 국학진흥원,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1.22 (화)	17:00 ~ 18:00	⑤ <u>건설도시국</u>	
	19:00 ~ 20:00	⑥ <u>환경산림자원국</u> * 경북환경연수원	
1.24 (목)	15:30 ~ 16:30	⑦ 재난안전실+소방본부	
	16:30 ~ 17:30	⑧ 자치행정국 * 새마을세계화재단, 종합자원봉사센터	
	17:30 ~ 18:30	⑨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단 * 대경연, 개발공사	
1월 중		⑩ <u>환동해지역본부</u> *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독도재단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4(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작성 자	과 장	한 재 성		
			팀 장	여승동	주무관	전해영
		연 락 처	054-880-3122			

경북도, 2019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공모

- 1월말까지 신청접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4개사업 공모(2,230백만원) -

경상북도는 지역예술가의 창작 기회확대와 문화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2019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총 22억 3천만원으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6.3억원), 레지던시프로그램지원사업(2억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4억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10억원)이며, 지원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예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공연예술 단체와 공연장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와 공연단체의 우수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기 위해 단체당 최저 4천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레지던시프로그램지원사업은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특정지역에 정착하여 창작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발표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규모는 4~10개 정도 단체를 선정해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은 경북지역의 문화·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음악, 연극, 무용 등에 대한 작품 공연(창작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5개 정도의 단체를 선정해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창작의욕 고취와 활동지원을 위해 최저 2백만원에서 최고 1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재성 경북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예술인의 창작 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통해 문화경북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인터넷 홈페이지(www.gb.go.kr) 도정 소식(고시공고)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 문화예술과(054-880-3118)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4(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 성 자	과 장	정 진 환			
			팀 장	송 홍 식	주무관	조 현 학	
		연 락 처	054-880-2839				

경북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말까지 **-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경상북도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내 23개시군 332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도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시군 읍면동 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 등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게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주요 사실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 의심자 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의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4(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구자숙	주무관	임민아
		연 락 처	054-880-3789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환자 급증.. 경북도, 개인위생 준수 당부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 -

경상북도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최근 도내 8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첫째 주('18.12.30~ '19.1.5)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5명으로, 2주 전(51주, 12.16~12.22) 3명 대비 5배 가량 증가했다.

- * 1) 전국 : 51주(12.16. ~ 12.22.) 202명, 52주(12.23. ~ 12.29.) 189명, '19년 1주(12.30. ~ 1.5.) 184명
- 2) 경북 : 51주(12.16. ~ 12.22.) 3명, 52주(12.23. ~ 12.29.) 16명, '19년 1주(12.30. ~ 1.5.) 15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으로 인한 사람 간 전파를 통해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바른 손 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실시하는 한편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과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염소 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증상이 없어진 후 최소 2일까지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일반인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기
 -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전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특히, 굴, 조개류 등)

▣ 환 자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기
- 환자가 어린이집, 학교 학생일 경우 적어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2일 까지 공동생활을 하지 않기
-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않기

▣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은 소독 후 사용하기
- 환자가 만졌거나 구토물에 오염된 식품은 폐기하고, 문고리나 물품은 소독
- 식기는 온수와 세제로 씻고 빨래는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하기
- 환자가 발생한 가정에 다른 사람들 방문을 자제
- 환자는 가족과 떨어져 다른 방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것을 권장
- 환자는 가족과 수건을 따로 사용하기

붙임 1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홍보자료

□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 올바른 손씻기 홍보자료



□ 올바른 손씻기 홍보자료

—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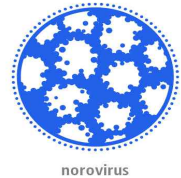


□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2017.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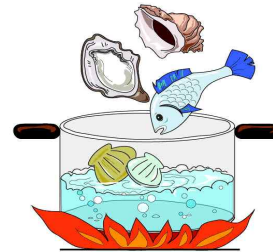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 / 방 / 수 / 칩



0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0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03 물은 끓여 마십니다.



0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05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06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칼·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 손씻기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 ① 음식 조리 전 ② 수유하기 전 ③ 배변 전후 ④ 기저귀 교체 전, 후 ⑤ 설사증상이 있는 사람을 간호한 경우 ⑥ 외출 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질병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 : 지정 □ 질병코드 : ICD-10 A08.5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orovirus</i> - <i>Caliciviridae</i> 속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32nm의 크기 소장 미세용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현
병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전파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변-구강 경로 감염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0시간(12~48시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ORF1-ORF2 junction) 검출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임상적 증상은 묽은 설사변과 설사 1~2일 후에 나타나는 구토 (평균 설사 기간은 40형의 경우 8.6일, 41형은 12.2일) □ 2~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증상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보충
치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회복하고, 사망은 드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관리 : 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간호, 간병, 의료 종사자에서 업무 제한,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 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소독(1,000~5,000ppm 염소소독)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조리 전, 수유하기 전, 배변 후, 설사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경우, 외출 후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9. 1. 14(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촌개발과			
		작 성 자	과 장	박 동 엽		
			팀 장	염태용	주무관	박기표
		연 락 처	054-880-3397			

경북 '농촌개발' 호, 2020년 국비레이스 본격 돌입.. 출력 높인다 **-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5분야 98개 지구 2,195억원... 전문가 사전 컨설팅 -**

경상북도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개발 국비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북도는 대학교수 등 농촌개발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사전 사업성 검토 자문위원회(2개반, 7명)를 구성하고, 16일까지 3일간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할 5개 분야 98개 지구(2,195억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시군에서 준비 중인 사전사업계획서 서류심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전문적인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에 있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선정 종합 검토에 대비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로의 예산체계 개편,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다.

경북도가 2020년 신규로 신청할 사업은 ▲ 중심지활성화 3개 지구 480억원 ▲ 기초생활거점 23개 지구 920억원 ▲ 마을만들기 61개 지구 325억원 ▲ 신활력플러스 5개 지구 350억원 ▲ 농촌다움복원 6개 지구 120억원 등 98개 지구 총사업비 2,195억원 규모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개발 공모사업은 이번 경북도의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2단계 종합검토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최종 사업지구가 확정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 등 공모사업 신청 대비 90% 이상의 선정률로 '19년도 총사업비 1,498억원을 확보해 지난


‘15년부터 5년 연속 전국 최다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매년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들로 사전 사업성 검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경북도와 23개 시군 농촌개발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업체계가 만들어낸 성과물로 풀이된다. 사전 사업성 검토 자문위원회는 경북도가 유일하게 매년 운영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에 검토하는 신규 사업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불식시키고 경북에 새바람을 일으켜 행복 경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년도 역시 전국 최다 국비예산을 확보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농촌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돌아오는 귀농·귀촌 1번지 경북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9. 1. 14(월)】	담당부서	동해안전전략산업국 동해안정책과			
		과 장	정 현 표			
	연 락 처	작 성 자	팀 장	권병석	주무관	김성일
		054-880-7613				

동해안전락을 한 눈에... ‘동해안전락 60대 시책’ 책자 발간 **- 동해안전전략산업국 중점 시책 60건 책 한 권에 담아.. 직원 업무안착 및 시군과 소통 -**

경상북도는 동해안전락 주요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한권으로 보는 2019 동해안전락 60대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

총 200페이지 분량으로 한손에 휴대할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된 이 책자는 동해안정책, 에너지산업, 원자력정책 분야 중점 추진사업과 업무 참고 자료, 관련법령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시책으로는 ▲ 해양기술 실험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사업 ▲ 광역 해양관측 연구망 구축 기획연구 사업 ▲ 동해안 등대콘텐츠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 해양치유 관광단지 조성사업 ▲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 복지시설·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 국제 원자력 안전 연구단지 조성사업 ▲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역점시책 60개 사업이 수록돼 있으며 총 사업 규모는 1,136억원이다.

참고자료로는 2019년 주요사업 조서와 함께 에너지 수급 및 원자력발전소 현황 등이 안내돼 있으며 관련법령으로는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에너지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동해안전락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치법규들이 제시되어 있다.

경북도는 이 책자를 시군에 배부해 도의 동해안전락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 각종 국·도비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시군과 소통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락산업국장은 “다양한 사업들을 책 한권에 담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연찬은 물론 시군의 사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4(월)】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작성 자	과 장	이 상 택		
			팀 장	김명원	주무관	이우경
		연 락 처	053-320-0248			

경북도, PLS 대응 현장기술지원반 운영

- 올 1월 1일부터 PLS제도 전면시행.. 농업현장 안정적 정착 위해 기술지원 나서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기준 PLS 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반을 편성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 농기원은 작물별 등록농약 안내,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및 사용 횟수 등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지원,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 안내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딸기와 참외 등 겨울철 시설재배 작물의 경우 수확이 3~4일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약 사용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점박이응애나 흰가루병 등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찾아 칠레이리응애와 같은 천적과 황토유황 등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함께 사용하여 PLS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추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 농업기술원은 기술보급과장을 반장으로 4개반 8명의 작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PLS 시행 초기인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판매 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여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도 농기원은 농업인들이 반드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확인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된 농약은 ‘농사로’ 나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택 경북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도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촉 및 출범식’ 가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 15일(화) 오전 10시30분 도청 화백당에서
도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출범식을 갖는다.